

장성 상징하는 ‘옐로우 게이트’ 들어섰다

광주~장성 방향 국도 1호선에 대형 조형물 설치

안정·상승·희망 의미 담아...컬러마케팅 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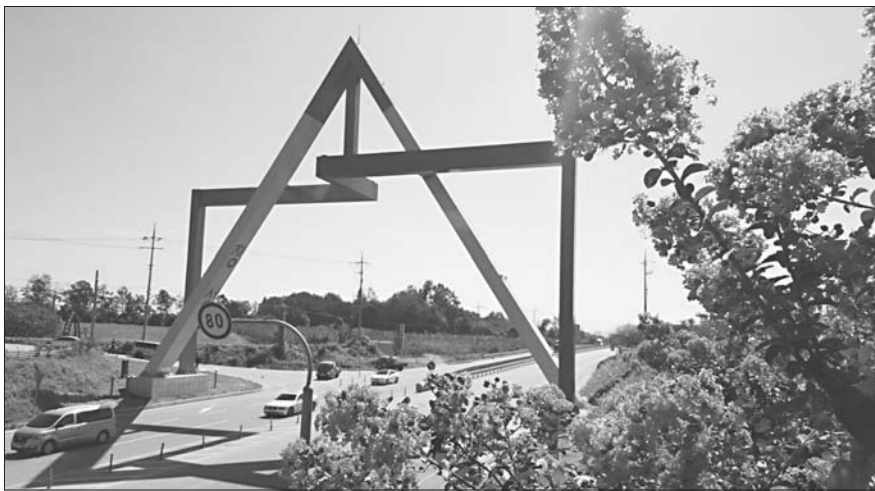
광주에서 장성으로 향하는 국도 1호선 상에 대형 조형물 ‘옐로우 게이트’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가로 34m, 높이 28m 규모의 ‘옐로우 게이트’는 장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벌이고 있는 컬러마케팅인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를 함축적으로 알리고 옐로우시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조성됐다고 밝혔다.

‘옐로우 게이트’ 구조물은 ‘옐로우시티’ 장성군이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인 안정, 상승, 희망을 함축하고 있다. ‘옐로우게이트’에 쓰인 색 중에서 노란색은 장성군이 표방하는 사계절 내내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인 ‘옐로우시티’를 상징한다.

장성군은 황룡강에 누런 용이 살았다는 전설에 착안해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노란색과 장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인 셈이다. 이와 함께 오방색의 중심인 노란색은 호남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장성군의 의지를 보여준다. 아울러 노란색은 황금색으로서 부(富)를 상징해 장성을 ‘부자농촌’으로 만들겠다는 희망도 담고 있다.

게이트의 또 다른 컬러인 빨간색과 파란색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무늬를 상징하는 것으로 ‘옐로우게이트’에 적용해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광주에서 장성으로 향하는 국도 1호선상에 최근 장성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 ‘옐로우 게이트’가 설치됐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한눈에 ‘옐로우게이트’의 색다른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군 관계자는 “광주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조형물 설치가 불가능해 진원면 산정리 한마음공동체 입

구 인근에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의 관문에 설치하는 ‘옐로우게이트’가 ‘옐로우시티’로서의 장성의 정체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군 랜드마크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정윤섭 기자 jjs@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18일 김해·봉하 지역에서 진행된 제5차 문화역사탐방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 청소년, 김해·봉하 지역 문화역사탐방

지도교수 인솔하에 수로왕릉·구지봉·대성동 고분 등 답사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관수)은 18일 김해·봉하 지역에서 진행된 제5차 문화역사탐방을 마무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을 비롯해 수로왕릉, 구지봉, 대성동 고분 등을 답사한 이번 탐방은 이형운 대구 가톨릭대 교수 지도로 진행됐으며, 청·솔·모(청소년을 위한 솔선수범하는 어머니) 학부모지원봉사단도 함께했다.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꾸준히 진행돼온 문화역사탐방 ‘씨’는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의 대표적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으로, 이번 5차 역사탐방을 마지막으로 올해 문화역사탐방 활동은 모두 끝마쳤다.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내년 3월 함평지역 역사탐방을 시작으로, 역사 골든벨, 해외역사탐방, 부모님과 함께 하는 판문점 및 비무장지대 역사탐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의집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맘껏 뛰놀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규진 기자 jin2001@

장흥 대덕읍 ‘맘 출산 축하용품 지원’

장흥군 대덕읍은 출산 장려의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덕 맘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덕읍에 거주하면서 2018년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물티슈 등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대덕읍 이웃사랑 나눔의 손기탁금을 활용한다.

지난 12일에는 올해 6~8월에 출산한 가정 4가구를 방문해 출산용품을 전달했다.

올해 들어 13가구를 지원했으며, 이는 작년 총 10명에 비해 출생 아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용품을 지원 받은 산모는 “아기를 낳게 되면 경제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전 대덕읍장은 “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아기 울음소리가 자주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강인규 나주시장, 추석맞이 군·경 위문

나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장 강인규 나주시장)에서는 지난 17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치안유지와 지역안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관내 나주경찰서 의경부대와 공군 제8362부대 및 육군 제8332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치하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나주시 명절 맞이 군부대 위문은 매년 설 명절과 추석절 등 연 2회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며, 이날 군부대 위문은 불철주야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소중함과 고마움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의 전환을 이뤄냈지만 지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성공 개최 총력

영광군의회 상사화 축제장 일원서 홍보활동 ‘구슬땀’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최근 영광 상사화 축제장 일원에서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에 나섰다.

의장을 비롯한의원들은 직접 e-모빌리티를 시승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가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영광 대마산업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이날 축제장 입구에서 시작해 불갑

사 일주전 앞까지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 홍보를 했으며, 방문객들에게 엑스포 기간에 많이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필구 영광군의회장은 “엑스포가 30일이 채 남지 않아 군의회 차원에서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며 “상사화축제장을 찾은 많은 방문객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화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둔 18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 /화순군 제공

화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나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추석 명절을 앞둔 18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충곤 군수를 비롯해 강순발 군의회 의장, 강일원 화순경찰서장, 정해진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기관 단체장과 박두진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했다.

최근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 캠페인에 참석한 인사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격려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을 이용을 홍보했다.

구충곤 군수는 “추석맞이 행사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값싸고 신선한 전통시장을 찾아 자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담양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폐지

담양군이 2005년부터 시행해온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요민원상황실은 2005년 7월 전면 시행된 주 40시간 근무제로 행정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토요일 휴무 인식 확산과 무인민원발기, 전자정부 운영 활성화 등 변화한 시대에 따라 토요민원상황실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군은 오는 10월부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을 폐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증명민원이 필요한 주민은 각종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기기와 정부24(www.gov.kr) 등 전자정부 창구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양=강종연 기자 jibest1@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